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의 관광특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혁진¹⁾ · 최화열²⁾

The Study on the Tourism Characteristics and Promotional Plans of Jeju Bangeo Festival

Lee, Hyuk Jin¹⁾ · Choi, Hwa Yeol²⁾

요 약 : 본 연구는 제주도의 지역축제 중 하나인 최남단 방어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성립배경과 과정, 문화관광이벤트 특징 및 특성화 방향을 고찰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최남단 방어축제를 포함한 축제관련 문헌조사와 사진을 이용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슬포항 일대에서 열렸으며, 무대행사(풍어제, 불꽃놀이 등), 체험행사(방어 맨손으로 잡기 체험, 최남단 전국 선상 방어 낚시 체험 등) 및 기타 프로그램이벤트로 구성되었다. 최남단 방어축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산업축제로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최남단 방어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축제를 지향하고 제주의 해양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축제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관람객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축제 개최 시설 및 공간을 정비하고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축제장소 내 프로그램과 관람객의 동선을 원활히 배치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주요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 방어축제, 축제관광, 모슬포

Abstract : This research studi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festival's establishment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tourism event regarding Jeju Bangeo Festival, JeJu's one of symbolic local festivals. For the research, local surveys using pictures, documents regarding the festivals including Bangeo Festival were studied. 2014 Jeju Bangeo Festival was held at the Moseulpo area during November 7th and 9th, and was comprised of stage performances(Pungeo-Je and Fireworks, etc), activities(Catching Bangeo with bare hands and Bangeo Fishing on a boat, etc), and other program events. Bangeo festival is a nationally renown festival, using the local resource, and in order to activate the Bangeo festival,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made. First, in order to aim quality festival and develop as Jeju's monumental marine festival, budget should be secured. Secondly, entrepreneurial mindset should be used for efficiency of the festival cost. Thirdly, expanded program that would attract tourists' attention is necessary. Fourthly, there is a necessity to fix and renovate the facilities. Lastly, deployments should be made considering programs and typical paths of tourists.

Key words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ocal Festival, Bangeo Festival, Festival Tourism, Moseulpo

-
- 1)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Sports and Outdoors, Eulji University), hyuk2jin@eulji.ac.kr
 - 2) 교신저자, 제주국제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교수(Author for Correspondence, Professor, Dept. of Airline Service Managemen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hwayeol@hanmail.net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축제는 제례의식, 지역주민의 연대강화, 전통문화 계승 등의 원초적인 기능의 수행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관광과 연계하며 나아가 지역생산품의 홍보 및 판매를 겨냥하는 등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만들고 경쟁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추세를 입증하고 있다(이혁진·최화열, 2007).

축제는 세계 인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전 세계인이 동감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기도 하고 있다. 축제는 관광객 등 축제참가자 유입으로 실질적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많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전·최진희·이종호, 201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민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반축제나 행사가 개발·시도되고 있다. 그 예로는 제주도의 지역축제 중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서귀포 칠십리축제 그리고 최남단 방어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축제 중에서도 최남단 방어 축제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축제본연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왔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를 현대적 축제문화로 발전시킨 제주도민의 핵심 축제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우기남, 2010; 류웅걸·양성국·문성주, 2012; 김의근·류웅걸, 2004).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는 2001년 첫 번째를 축제를 시작으로 2010년 약 10만 명, 2014년 약 22만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15년 동안

안 양적 성장을 해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남단 방어축제는 15년이란 ‘양적 누적’에서 얻은 변화의 동력을 ‘질적 변화’로 이끌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5년 간 이어지면서 양적 그리고 질적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하나인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를 사례로 축제의 성립과 전개, 축제이벤트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고, 최남단 방어축제의 나아갈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서 실내조사와 현장조사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실내조사방법에서는 축제관광관련 자료와 논문 그리고 보고서 등 문헌을 수집해 연구 내용의 틀과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현지조사는 2014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방어축제 기간 동안, 답사와 사진연구가 병행되었다. 제주 모슬포의 최남단 방어축제를 연구테마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축제로 연구 수행 가치를 지닌 점, 둘째, 신앙과 어업에 뿌리를 두어 풍어제와 놀이를 보존해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점, 셋째,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알리는 해양문화제로서 성격을 지닌 점, 넷째, 축제의 소비측면 뿐 아니라 생산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와 같은 제주 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점 등이다.



<사진 1> 최남단 방어축제
(출처: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

2) 연구동향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축제관광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축제관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형태의 하나이며,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새롭게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이미지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다(Getz, 1991.; Hall, 199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축제의 개최를 통해 많은 축제 방문객을 유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는 관광학을 비롯하여 지리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민속학, 행정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김화경 · 최화열, 2015). 주요 연구주제는 축제의 관광객에 대한 관광행태 관련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공간분포와 지역 특성, 축제의 영향과 파급효과 등 다양하다(이혁진 · 최화열, 2014).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축제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탐색적 연구와 계량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색적 연구의 사례는 용연야법재현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참가자의 플로우 체험에 대한 연구(송재호 · 오상훈 · 이성은, 2009),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발전 방안(우기남, 2010) 및 슬로우 투어리즘의 시각에서 제주올레걷기축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최화열 · 박연옥 · 윤병국, 2015)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지역축제에 대한 계량적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활성화방안(고승익 · 오상훈, 2000)을 비롯하여 축제의 시장세분화와 관련된 것으로 서귀포 칠선녀 축제 시장세분화(고승익 · 이성은, 2006)와 제주올레걷기축제 방문객에 관한 시장세분화(고미영 · 오창현 · 정철, 2012)가 있으며, 지역축제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로는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축제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장성주 · 양영근 · 고계성,

2008), 이벤트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김의근 · 강숙영, 2010), 지역축제 참가자의 특산물 구매행동(김영남 · 서용건 · 정철, 2011) 등이 있다. 또한 최남단 방어축제를 대상으로도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김희철 · 김민철 · 부창산, 2007), 축제의 영향인식이 지역사회 애착 및 축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류용걸 · 양성국 · 문성주, 2012)과 축제의 환경단서가 방문객의 긍정적 감정, 지각된 가치, 전반적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승훈, 2014)과 같은 경영학적인 실증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전통문화나 지역특산물에 중심을 둔 축제가 아닌 생태관광에 관련된 축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의 전통 문화와 지역특산물에 관련된 문화축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축제 현황

제주의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축제적 성격의 문화행사를 연중 펼치고 있으며, 제주도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사 가운데 무엇을 지역축제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범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90년대 이전에는 감귤축제, 유채꽃축제, 탐라문화제, 제주철쭉제 등 4개의 관주도의 축제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 지역주민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축제와 스포츠레저축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의 내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관광지 경유 시에도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제들이 만들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제현황을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산일출봉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주성산일출제를 시작으로 하여 총 57개 축제가 펼쳐졌으며, 관광축제 22건, 스포츠레저축제 5건, 특산물축제 8건, 문화예술축제 12건, 전통 민속축제 10건 등이다(표 1).

<표 1>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현황

구분	개수	축제명
관광축제	22	제주 왕벚꽃축제, 예래 생태마을 체험축제, 제주성산일출제,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 제주원도심 재생축제, 돈내코 원앙축제, 한림공원 수선화·국화·수국·튤립·매화축제, 노리매 대화축제, 서사라 문화거리축제, 삼양검은모래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도두 오래물축제, 환경사랑 쇠소깍 검은모래축제, 제주유채꽃큰잔치, 금능원단축제, 휴애리 매화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제주 도새기축제
스포츠레저축제	5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제주마라톤축제, 제주 평화의섬 마라톤 대회, 제주 올레걷기축제
특산물축제	8	고마로 마축제, 보목 자리돔축제, 우도 소라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제주감귤축제, 제주마 축제,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문화예술축제	12	용연산상음악회, 탐라문화제, 서귀포야해페스티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한여름밤 숨 반전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한여름밤 사랑나누기 미니콘서트, 방선문축제,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대정고를 추사문화예술제, 4.3문화예술축제, 제주뮤직아일랜드페스티벌, 제주프린지페스티벌
전통 민속축제	10	탐라국 입춘굿놀이, 정의고을민속재현축제, 이호테우축제, 들불축제,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제주해녀축제, 혼인지축제, 제주민속촌 설맞이 민속행사, 산지천축제,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축제
합계	57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제는 유형구분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축제는 축제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성산일출제(12-1월), 봄이 오면 제주도 전역을 노랑게 물들이는 유채꽃 현장을 전국에 알리는 제주유채꽃큰잔치(4월),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8월), 삼양검은모래축제(7월), 쇠소깍 검은모래축제(8월)과 같은 바다를 활용한 해안관광축제, 서귀포 칠십리 해안 일대에서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귀포 칠십리축제(10월) 등 다양하다(사진 2).

둘째, 스포츠레저축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추구하는 여행형태이며, 도보와 트레킹의 봄에 힘입어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3월)와 제주 올레걷기축제(11월)가 열리고 있다(사진 3). 또한 제주마라톤축제

(6월), 제주 평화의 섬 마라톤 대회(4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펼쳐지는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8-10월) 등이 축제화되면서 아웃도어스포츠 활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특산물축제는 제주의 전통산업에 뿌리를 둔 형태로서 제주 감귤의 우수성과 확산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인 제주감귤축제를 비롯해 우도 소라축제(4월), 보목 자리돔축제(5월), 추자도 참굴비대축제(7월), 최남단 방어축제(11월)와 같은 어업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넷째, 문화예술축제는 탐라문화제(10월)와 대정고를 추사문화예술제(11월)와 같이 전통문화의 구성요소가 중심이 되는 유형과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에서 펼쳐지는 제주뮤직아일랜드페스티벌(2월), 제주시 해변공연장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7-8월), 서귀포시



<사진 2> 제주 서귀포 칠십리축제
(출처: 제주 서귀포 칠십리축제)



<사진 3> 제주올레걷기축제
(출처: 제주올레걷기축제)

표선해비치해변에서 열리는 서귀포 야해페스티벌(8월)과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9월) 등과 같은 현대적인 감각에 초점을 둔 예술행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전통 민속축제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들불축제(3월)를 비롯하여 탐라국 입춘굿놀이(2월),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축제(10월), 정의고을민속재현축제(10월)와 같은 민속문화관련 축제 그리고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및 해안일원에서 열리는 제주해녀축제(10월) 등의 사례와 같이, 제주의 전통문화유산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3. 최남단 방어축제의 성립과 관광이벤트

1) 최남단 방어축제 개최와 주제

최남단 방어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이 주산지인 방어를 주제로 한 특산물 축제이다(최남단방어축제 위원회, 2010). 특히 지역 특

산물 방어를 알리는 동시에, 모슬포 항구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제철 방어의 맛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2001년부터 매년 11월 개최되고 있다.

방어(학명 *Seriola quinqueradiata*)는 농어목 전갱이과에 속하는 온대성 바닷물고기이며, 난류를 따라 연안의 중, 하층을 헤엄쳐 다닌다. 몸의 빛깔은 등 쪽은 짙은 푸른색, 배 쪽은 은백색을 나타내며, 복서태 평양의 남중국해, 타이완, 동중국해, 일본, 한국 등에 분포한다. 방어는 가을이 되면 월동을 위해 감차가 반도에서 남으로 회유하고 있으며, 마라도가 주요 월동지로 이 지역 특산물인 자리돔을 먹이로 겨울을 보낸다.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제주 마라도를 중심으로 방어 어장이 형성된다(두산백과, 2015).

모슬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포구로서 자치도 남서쪽 끝에 있다(그림 1). 배후에 모슬봉(187m)과 가시악(加時岳, 123m)을 등지고 있는 남서부 해안은 암석해안 또는 암초로 둘러싸여 천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모슬포항
(출처: 두산백과)

연의 방파제가 되고 있다. 원래 모슬포는 대정의 외항 겸 어항으로 발달해왔으나 관광지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모슬봉에서 남해를 바라보면 바닷물에 비치는 어선과 섬, 가파도와 국토 최남단 마라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두산백과, 2015).

이곳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군대(일본군, 미군, 국군 등)가 주둔하였던 곳으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3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위령탑이 있는 곳이다. 경제적으로는 제주도 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모슬포 최남단 방어축제는 타 축제와 비교하여볼 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펼쳐지고 있으나, 제주의 대표 해양문화축제로서 기본적인 테마를 지니고 있다.



<사진 4> 길놀이

2014년 방어축제는 최남단 방어축제위원회의 주최로 ‘청정 제주바다의 멋과 맛’이라는 기본 테마를 갖고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에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2015 방어축제는 동일 장소에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2) 관광이벤트

최남단 방어축제는 매년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지역축제의 제의적인 성격을 알리는 취지에서 길놀이(사진 4)와 풍어제를 시작으로 하여 최남단 전국 선상 방어낚시체험(사진 5)과 방어 맨손으로 잡기체험(사진 6)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행사, 무대행사(사진 7)와 각종 부대행사 및 상설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진다.

- 체험행사: 방어 맨손으로 잡기체험, 방돔이 방순이 투호 던지기, 최남단 전국 선상 방어낚시체험, 어린이 물고기 잡기체험, 펠러비즈(Perlerbeads)
- 무대행사: 풍어제, 불꽃놀이, 가요제 및 각종 공연
- 부대행사: 사진촬영장 운영, 방어회 무료 시식코너, 페이스페인팅, 회포장센터, 사생대회, 각 리 대항 족구대회, 어르신 각 리 대항 이벤트
- 상설프로그램: 향토음식점, 기념품 판매장, 특산물 판매장 운영



<사진 5> 최남단 전국 선상 방어낚시체험



<사진 6>방어 맨손으로 잡기 체험



<사진 7> 무대공연
(출처: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

<표 2> 2014년 최남단 방어축제의 주요 행사

일정	프로그램	체험행사	부대행사	상설행사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놀이 행사장오픈 및 테이프커팅 풍어제 식전공연 개막식 식후공연(시립 합창단) 초대가수 공연 	방어맨손잡기 방돌이 방순이 투호던지기 어시장 방어경매 어린이 물고기 잡기체험 캐릭터 인형 만들기체험 마술체험 버블체험 연만들기체험 펄러비즈체험	포토존 방어회 포장센터 페이스 페인팅	지역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 기념품판매장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생대회 행사준비 청소년 페스티벌 가요제 예선 1부 청소년 수련관 플래시몹 가요제 예선 2부 모창가수쇼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준비 어르신 경기 지역공연 가요제 시상 경품추첨 폐막식 및 불꽃놀이 			

(출처: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

2014 최남단 방어축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방어를 중심으로 멸치, 소라, 마늘, 감자 등 특산물의 다양화를 통한 특산물 축제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한 어울림 축제, 선상 방어낚시와 같은 관광 상품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셋째,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제 및 특산물 홍보로서 제주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물, 축제를 종합한 홍보물의 제작, 협력업체 제휴를 추구하였다.

넷째, 차별화된 주민 주체의 축제 운영을 피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통한 전문적 역할분담 운영과 마을별 다양한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관광업체, 학계, 여행사, 문화컨설팅업체, 체험프로그램 동호회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도내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4. 최남단 방어축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1) 방어축제의 변화와 문제점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는 첫째, 지역생산품을 주제로 한 축제이며, 둘째, 지역 주민이 축제의 주최, 주관 맡고 있는 축제이며, 셋째, 제주도라는 큰 관광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의 한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최남단 방어축제는 지금까지 14차례 개최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축제, 관광객들의 참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축제, 지역성을 탈피한 세계적인 축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축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축제로서 제주의 명실상부한 해양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체험·참여 프로그램의 강화에 의한 방어 맨손으로 잡기, 최남단 전국 선상 방어낚시 체험, 방돌이 방순이 투호던지기 등은 축제관람자들로 하여금 가장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방어축제의 가치에 대한 비용을 확인하였을 때, 최남단 방어축제는 관광 제주의 대표해양축제로서 축제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는 감소해 해마다 작은 예산지원을 받았다. 2009년 문화관광축제 4등급인 예비축제로 선정된 당시의 2억 원의 1/2에 달하는 예산지원금인 반면 제주의 유망축제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52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문화체육관광부, 2014) 결과, 제주지역축제는 해당 주제별 프로그램과 캐릭터 상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지역성에 치중한 나머지 관광객과 유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열리는 축제를 주제와 콘텐츠 등의 경쟁력을 위주로 구조 조정하여 예산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앞으로 축제평가에 있어 예산 증액 또는 감액의 명확한 설정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제주도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남단 방어축제는 제주의 대표 해양축제로서 2008년, 2009년 2차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보다 나은 전국적인 축제로서 입지를 강화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향후 우수 혹은 유망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참여율 제고, 민관주도의 축제 운영, 외국인 환대서비스 등 국제화를 위한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활성화 방향

2014 최남단 방어축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관광이벤트와 행사를 도입하였고, 최남단 방어축제 위원회의 주최 노력에 힘입어 지역축제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으로써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등급에 있어서, 2009년 예비축제를 받은 이후 가시적인 외부 지원이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

므로, 최남단 방어축제가 유사 축제와 경쟁을 뚫고 보다 특성화된 지역축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제주 방어축제가 우수축제를 지향하고, 제주의 해양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의 우수축제의 예산은 8~15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된다. 그러나 제주 방어축제는 1억 원 남짓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축제의 주제와 발전성에 비해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 해양대표축제로 전국적이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당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축제의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시설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축제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축제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 방어축제의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어축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서 개최해야 한다. 축제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기업과 지역상인의 경제활동의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축제비용의 자립도확보를 위해 축제 관련자들에 대해 스폰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제주 방어축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최남단 전국 선상 방어낚시 체험의 경우 신청자에 비해 어선 수의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참여와 체험을 통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람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올레길 탐방, 지역 농어촌 체험이나 주변 섬을 방문하여 체류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 방어축제가 1년 중 11월에 개최되는 기후와 짧게 열리는 기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최시설 공간을 정비하고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관람객에 비해 축제장의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입구 쪽 잡상인 출입구가 협소해 관람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축제 대체장소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축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모슬포 남항으로 주 행사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제주 방어축제의 결과모니터링을 활용해, 축제장소 내 프로그램과 관람객 동선을 원활하게 배치하여 관람객들을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실제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천막의 위치로 인해 행사장은 방문객 수에 비해 많은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과 관람객들의 동선을 파악해 텐트를 배치해야 한다. 천막배치와 공간구성 연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행사 프로그램과 방문객 동선의 일치성이 중요하므로, 합리적인 텐트배치를 통해 고객 동선을 연출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축제의 운영이나 시설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5. 결론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을 주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축제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축제이다. 제주 모슬포의 최남단 방어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축제로 연구수행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신앙과 어업에 뿌리를 두어 풍어제과 놀이를 보존해 계승·발전시키고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알리는 해양문화제로서 성격, 축제의 생산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와 같은 제주 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최남단 방어축제를 사례로 제주의 축제현황, 축

제의 개요, 제의와 축제관광이벤트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고, 최남단 방어축제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남단 방어축제는 지역의 자원과 큰 관련성이 없는 주제를 발굴해 축제로 상품화시킨 타 축제와 달리,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축제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갖춘 축제이다. 이런 탄생 배경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페인 부놀(Bunol)의 토마토 축제나 프랑스 망통(Menton)의 레몬축제와 같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바람직한 축제지역마케팅(Festival Place Marketing)의 성공 사례와 같이, 제주도의 특산물축제를 통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하다.

첫째, 제주 방어축제가 우수축제를 지향하고, 제주의 해양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제주 방어축제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적인 사업에서 요구되는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제주 방어축제가 다른 축제와는 전혀 다른 지역에 뿌리를 둔 특산물축제로서의 관심과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이벤트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 방어축제가 11월에 개최되는 기후와 짧게 열리는 기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최 시설 및 공간을 정비하고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제주 방어축제 결과모니터링을 통해, 축제장소 내 프로그램과 관람객 동선을 원활하게 배치하여 관람객을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남단 방어축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지리사진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방어축제의 관광특성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관찰연구 뿐 아니라 축제개최자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이런 과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제주도 방어축제와 제주도의 다양한 특산물 축제 혹은 제주지역이 보유한 전통축제의 유형과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충청남도 금산이나 경상북도 영주 인삼축제, 강원도 양양의 연어축제나 송이축제와 같이, 지역적으로 알려진 타 지역의 특산물축제를 관광지리학적으로 함께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미영 · 오창현 · 정철, 2012, “추구편익을 활용한 지역축제 방문객 시장세분화 -제주올레걷기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36(5), 93-113.
- 고승익 · 오상훈, 2000,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12, 35-62.
- 고승익 · 이성은, 2006, “서귀포 칠선녀 축제 시장세분화 고찰”, 제주도연구, 29, 61-86.
- 김영남 · 서용건 · 정철, 2011, “지역축제 참가자의 지역특산물 구매행동 -제주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3), 197-217.
- 김의근 · 강숙영, 2010, “지역축제, 이벤트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557-595.
- 김의근 · 류용걸, 2004, “지역축제이벤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모슬포 방어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8, 119-139.
- 김화경 · 최화열, 2015, “가야문화축제의 관광특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5(1), 139-148.
- 김희철 · 김민철 · 부창산, 2007, “제주방어축제의 재방문 요인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712-723.
- 류용걸 · 양성국 · 문성주, 2012, “제주도 방어축제의 영향인식이 지역사회 애착 및 축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연구, 24(3), 23-45.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8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3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송재호 · 오상훈 · 이성은, 2009, “지역축제 참가자의 플로우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용연야법재현축제를 대상으로-”, 탐라문화, 34, 219-255.
- 우기남, 2010,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발전방안 - 2010 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14, 131-167.
- 이전 · 최진희 · 이종호, 2011,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발전과정과 지역화 특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4), 77-86.
- 이혁진 · 최화열, 2007, “함평 나비축제 관광이벤트의 이해”,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7(2), 53-65.
- 이혁진 · 최화열, 2014, “강릉단오제의 문화관광 특징과 활성화 방향”,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3), 1-15.
- 장성주 · 양영근 · 고계성, 2008, “축제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제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2(4), 373-387.
- 정승훈, 2014, “해양축제의 환경단서가 방문객의 긍정적 감정, 지각된 가치, 전반적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14회 최남단 방어축제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9(3), 77-92.
- 최남단방어축제 위원회, 2010, 2009 최남단 방어축제 평가보고서.
- 최화열 · 박연옥 · 윤병국, 2015, “슬로우투어리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도보길과 제주올레걷기축제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9(2), 173-183.
- 두산백과(모슬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744&cid=40942&categoryId=33347>
- 두산백과(방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748&cid=40942&categoryId=32581>
- 제주 서귀포 칠십리축제, <http://www.i70ni.com>
- 제주올레걷기축제, <http://www.jejuolle.org/?mid=158>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http://www.jejutour.go.kr>
- 제주 최남단 방어축제, <http://bangeofestival.com>
- Getz, D., 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Hall, C. M., 1992, Hallmark Tourist Events: Impacts, Management and Planning, London: Bellhaven Press.
- 투고일 2015. 08. 30
수정일 2015. 09. 23
확정일 2015. 09. 25